

## 결혼사진에 나타난 남녀 결혼예복의 형태 분석

김재숙\*<sup>†</sup> · 송경자 · 이혜숙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 An Analysis of Wedding Outfits through Families's Wedding Photographs

Jae-Sook Kim\*<sup>†</sup>, Kyung-Ja Song and Hae-Sook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2. 11. 12 접수; 2003. 3. 29. 채택)

#### Abstract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1) to analysis Korean traditional wedding costumes through families's wedding photographs from 1940 to 2000, and (2) to categorize bride and groom's costumes according to the wedding time by means of a time series analysis. (3) to find out functional relationship among changes in garment types, garment details, embellishments and colors. The study was a documentary research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390 family wedding photographs by a convenient sampling. The data were analyzed by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 and the statistic used were frequency, content analysis, and cross-tab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garments of wedding couples were categorized into 5 period according to garment's characteristics. 1. The period between 1940~1959 : Korean traditional wedding costumes and western style wedding costumes were existed together in Korean wedding culture. 2. The period between 1960~early 1970's : western wedding costumes were dominated. 3. The period of late 1970's : wedding couple's costumes became more formal and decorative. 4. The period of 1980's : introducing see-through materials for brides and tuxedo suit for grooms. 5. The period of 1990's : extravagance in shapes and exposure. Second,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among brides's dress types and neckline, glove length, embellishments and transparency of materials and among groom's garment types and necktie types, types and color of shirts, vests. Third, the time series analysis of bride and groom's outfit produced 5 schematic expressions of wedding outfits according to the period.

*Key words* : bride(신부), bridegroom(신랑), wedding costume(결혼 예복), wedding photograph(결혼 사진), content analysis(내용분석).

#### I. 서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전 인류는 어떠한 형태로든 복식을 착용하여 왔으며 복식은 과거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변화되고 때로는 새로운 것

이 도입되기도 하였으며 결혼예복도 예외는 아니다. 인간의 일생을 통해 가장 경건한 의식은 결혼예식이 라고 볼 수 있으며 이때 입는 예복의 의미 또한 커서 결혼 예복은 시각적인 상징성을 갖음과 동시에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사회나 집단의 문화는 복식과 인간

<sup>†</sup> 교신저자 E-mail : jaesook@cnu.ac.kr

의 복식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문화적 현상은 복식에 반영된다. 즉, 문화는 사회의 기술적·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여러 분야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이 같은 변화는 사람들의 복식에 뚜렷하게 반영되며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근대 이후 우리 나라는 감오경장을 전후하여 개화사상의 고조와 함께 문화적·사회적으로 크게 전환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고유의 민족복인 한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양패션은 현대화·산업화와 함께 일상생활에 파급·수용되었으며, 결혼식 형태의 서구화와 더불어 결혼예복에 있어서도 서구식 형태로서 여자는 웨딩드레스, 남자는 서양복이 착용되고 있다. 결혼 예복은 변화되는 사회속에서 정치·경제·문화 등의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신랑 신부의 결혼예복 변화를 사회현상과 함께 고찰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의 복식 변천 과정에 대한 연구는 주로 잡지나 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자료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의생활이 반영되었다는 근거는 희박하며 또한 실제 결혼 사진을 이용한 경우에도 질적 분석만을 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제의 결혼사진을 자료로 사용하여 잡지나 신문기사보다 자료의 내적·외적 타당성을 높이고 내용분석에서 질적 분석과 양적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연구목적에 더욱 부합되는 분석을 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대체로 웨딩드레스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신랑의 결혼예복을 함께 연구하는 것은 의의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료수집이 가능한 1940년 이후의 결혼식 사진을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신랑·신부의 결혼예복 변화를 시대별로 분석하여 결혼예복의 특징을 알아보고 신랑·신부의 의복형태, 디테일, 장식, 색 등의 디자인 요소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 II. 194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적 배경과 패션

선행연구들<sup>1-5)</sup>을 통해 살펴볼 때 1940년대 이후의 사회적 배경과 패션현상은 다음과 같다.

1940년대 우리 나라는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해방을 맞이하면서 국토가 양단 되는 비운을 겪은 혼란의 시기였다. 이러한 격동을 겪으면서 의복에도 큰 변화가 일어 전시에 입던 작업복인 몸매나 간단복은 더 이상 입지 않게 되었고 고유복식인 한복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해외교포의 입국과 외국인의 출입, 미군의 주둔으로 양장이 눈에 띄게 되었다. 또한 1947년의 뉴욕이 한국에도 파급되었고, 다음에 의한 A라인의 플레어 스커트는 전세계는 물론 우리 나라 여성에게도 입혀졌다.

1950년대는 해방 직후의 혼란했던 사회가 안정을 되찾기 전에 6.25사변을 맞아 더욱 생활에 곤란을 느꼈던 시기였다. 거의 전국민의 대다수가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가 되돌아오는 과정 중에 과거 전통에 대한 체제가 붕괴된 시기이다. 한편 미군의 주둔은 양복을 일반화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결혼예복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 합성섬유가 등장하여 면직섬유에서 탈피하기 시작하였으며 나일론 블라우스(1954)가 입혀지기 시작했다. 또한 1956년에는 최초의 패션쇼가 개최되어 복식에 활기를 띄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sup>6)</sup>.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자유당 말기 부정 부패에 항거하는 4.19학생 의거가 일어나고 다시 5.16혁명이 일어났는데 정국의 불안과 더불어 패션계는 잠시 주춤하다가 안정을 되찾자 1963년경부터는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는 짧은 우리 나라 양장의 역사 가운데 복장의 변화가 가장 많

- 1) 김민자, 임원자, 이은영, 구미지, 김윤희, "한국 복식 변천과 사회변천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17권 제2호 (1993), pp.315-327.
- 2) 김자은, "웨딩드레스(Wedding Dress)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고찰",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3) 유수경, *한국 여성 양장 변천사*, 일지사 (1991).
- 4) 한상숙, "근대이후 한국의 혼례복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4).
- 5) 전양진, "경제발전과 복식의 서구화와와의 관계연구 -한국 여성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제23권 제8호 (1999), pp.593-600.
- 6) 강혜영, "전통혼례복을 활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은 시대였는데 이는 사회가 안정되고 섬유업의 발달과 경제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967년에 한국 패션에 도입된 미니스커트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 마이크로 미니로까지 과장되어 착용되었고, 이러한 짧은 스커트가 사회 문제화되어 풍기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의해 의생활은 풍요로워지고 다양해졌다. 초기에는 여성복 샤넬 라인이 유행했고, 스커트 단을 여러겹 겹쳐서 풍성하게 보이는 러플 스커트가 잠시 나오기도 했으며 1970년대 전반에 걸쳐 다양한 패션 스타일이 시도되었다.

1980년대 이후는 경제적인 안정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선진국형 소비 패턴이 나타나고 복식도 개성화, 고급화, 다양화가 시도되었으며 88 올림픽을 계기로 여가 시간을 즐기기 위한 스포츠 캐주얼 의류가 급속히 확산되었다<sup>7)</sup>.

2000년대에 들어서서도 월드컵 등 스포츠 분위기의 고조에 따라 스포츠 캐주얼 의류가 여전히 유행하고 있으며 남자들도 여성 못지 않게 패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 Ⅲ. 연구 방법

#### 1. 자료의 수집

연구방법은 문헌자료 분석 방법으로 1943년부터 2000년까지의 결혼식 사진 390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일반가정에서 소장하고 있는 결혼식 당일의 신랑·신부가 함께 찍은 사진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는 한국의 일반가정에서 소장하고 있는 결혼식의 신랑 신부 사진으로 패션 잡지나 카탈로그에서의 제시 사진이 아닌 실제 결혼예식에서 착용한 예복을 분석하였으므로 자료의 내적, 외적 타당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의 분석은 첫 단계로 의류학 전공자들이 구성된 전문가들이 신랑·신부가 착용한 예복의 형태적 특징을 내용분석으로 분석하였고 두 번째 단계로 결혼연도에 따라 빈도분석, 교차분석,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 2. 자료분석 및 범주 기준

##### 1) 자료의 특성

자료 수집시 사진의 신랑·신부가 결혼한 연도와 계절, 결혼장소, 직업을 조사하여 자료의 시대적 배경, 결혼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분석하였다.

##### 2) 결혼예복에 대한 내용분석의 범주 기준

###### (1) 신부 예복

의복유형, 드레스형태, 드레스 길이, 노출 정도, 네크라인 형태, 소매 형태 및 길이, 장갑 길이 및 착용 유무, 장식 정도, 직물의 비치는 정도를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의복유형은 한복 I(저고리, 치마, 베일), 한복 II(원삼, 족두리)와 웨딩 드레스로 구분하였으며, 드레스 형태는 좁음, A라인, 넓은, 주름 많음, 한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드레스 길이는 바닥 기준으로 하여 바닥보다 짧음, 바닥 길이, 바닥보다 김, 한복치마로 구분하였으며, 노출 정도는 노출 적음, 보통, 노출 많음, 한복으로 분류하고 구분이 어려운 사진 자료는 기타로 처리하였다. 네크라인 형태는 라운드 네크라인, 하이 네크라인, 보우트 네크라인, 스퀘어 네크라인,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소매 형태 및 길이 분석을 위해 소매 없음, 캡 소매나 반소매, 긴 보통 소매, 길고 특이한 소매, 칠부나 구부 소매, 한복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장갑은 착용과 미착용으로 나누고 착용했을 경우는 다시 긴 장갑과 짧은 장갑으로 나누었다. 장식 정도는 적음, 보통, 많음으로 구분하였으며, 직물의 비치는 정도는 불투명, 약간 비침, 많이 비침, 한복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 (2) 신랑 예복

의복유형, 예복 색상, 셔츠 형태, 셔츠 색상, 조끼 착용 유무, 타이형태, 넥타이 색상을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의복유형은 한복, 일반 양복, 턱시도로 구분하였으며, 예복 색상은 검색과 검정, 흰색, 브라운과 베이지, 회색,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셔츠 형태는

7) 김민자, 임원자, 이은영, 구머지, 김윤희, *op. cit.*, pp.315-327.

일반형, 턱시도용으로, 셔츠 색상은 흰색과 아이보리, 기타로 구분하였다. 조끼는 착용 유무로, 넥타이 형태는 일반형과, 보우타이, 자보우 타이, 기타로 분류하였으며, 넥타이 색상은 검색, 검정, 흰색, 회색, 빨강색, 아이보리, 여러 가지 색의 혼용, 기타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 3) 자료의 객관적 분석

내용분석에 사용된 범주 기준을 토대로 시대에 따라 결혼 예복의 형태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43년부터 2000년까지 결혼사진으로 장기간의 자료이므로 5년 단위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또한 예복의 형태적 특징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용분석의 범주별로 각 자료를 척도화하여 상관관계를 사용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자료의 특성

결혼사진에서 1960년대까지는 흑백사진으로 색의 분석이 어려웠고 자료도 많지 않아 1940년~1969년까지의 자료는 22장으로 전체의 5.6%에 불과하였다. 이는 사진 촬영이 일반화 되지 않은 시기였고 한국의 시대적 상황이 전쟁과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결혼사진을 찍지 못한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간직하기도 어려웠던 시기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1970년대부터 칼라사진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1976년 이후 칼라사진의 비율이 높아졌고 1981년 이후에는 모두 칼라사진이었다.

결혼하는 계절로는 여름(8.7%)을 제외한 봄(30.3%), 가을(22.8%), 겨울(33.8%)이 비슷한 분포를 보여 결혼의 시기는 여름이 회피되나 다른 계절은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혼례는 신부의 집에서 행해 왔으나 이미 서구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1943년 이후의 자료가 사용된 본 연구에서는 79%가 결혼식을 위해 만들어진 전문장소인 예식장에서 행해진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에 따라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착용하게 되었고 단지 유행에 따라 웨딩드레스의 형태를 비롯한 디자인 요소에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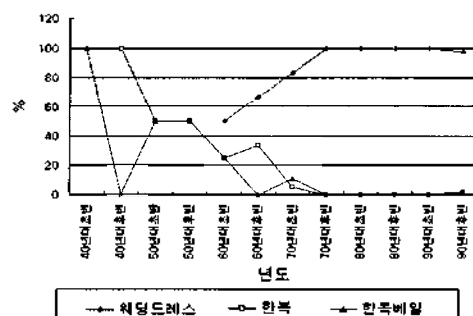
신랑, 신부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신랑직업과 신부직업을 조사 분석한 결과, 신랑의 직업은 화이트칼라(34.4%), 자영업(29.5%)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신부의 직업은 62.3%가 무직으로 나타나 여전히 여성의 사회진출은 남성보다는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 2. 신부 결혼예복의 변화

신부 결혼예복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결혼 연도를 5년 단위로 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각 항목들의 교차분석 및 질적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신부 예복 유형

신부 예복 유형의 시대별 변화는 <그림 1>과 같이 1950년대 후반까지 한복(저고리, 치마, 베일)이나 전통예복(원삼, 족두리)을 착용하였으나 196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웨딩 드레스가 입혀지기 시작하여 점차 그 착용 빈도가 많아지게 되었다. 강혜영<sup>8)</sup>, 김자은<sup>9)</sup>의 연구에서는 1950년대 말에 신식 결혼식과 신부의 웨딩 드레스가 일반화 되었다고 하였으나 실제 사진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일반인들에게 대중화된 것은 1960년대 이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 이후 한복 착용은 점차 감소하고 웨딩 드레스 착용이 늘어났는데 이는 여성복에서 1960년대 양장이 일반화 되고 예식형태가 서구화되면서 의복도 서구화 경향



<그림 1> 신부예복 유형의 변화.

8) 강혜영, *op. cit.*

9) 김자은, *op. cit.*

을 보인 것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는 한복을 착용한 경우를 볼 수 없게 되었으나 1990년대에 와서 다시 한복 착용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는 그 시기에 전통에 대한 관심으로 전통혼례가 잠시 유행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2) 신부 드레스 형태

웨딩드레스의 형태를 폭의 넓이에 따라 또 과도한 주름이 있는지에 따라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1950년대에는 항아리 모양의 주름 이루다가 점차 스커트 폭이 좁아져 1960년대에는 슬림형과 A라인이 혼재하였으나 슬림형이 우세하였다. 1970~1980년대까지는 A라인이 주를 이루면서 드레스 폭이 서서히 넓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한상숙<sup>10)</sup>, 김자은<sup>11)</sup>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특징은 레이스를 스커트에 여러 겹 덧대어 A라인을 만드는 티어드 스커트 형태로서 1974년 처음 등장하여 1982년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1977년 1978년, 1981년 자료의 대부분에서 이 스커트의 형태를 볼 수 있었다. 이것은 여성복의 변화를 볼 때 이 시기에 샤넬 라인이나 스커트 단을 여러 겹 겹쳐서 풍성하게 보이도록 하는 리플 스커트의 등장과 같은 시점이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드레스 폭은 점차 넓어지고 화려하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1980년대 가계소득이 향상되고 88 올림픽을 전후해 여성복이 한복에서나 양복 모두 좀 더 화려해진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이며, 1990년대 이후에는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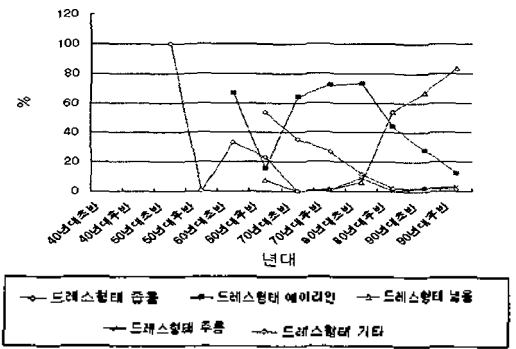
텔결혼식이 늘어나고 신랑예복이 턱시도가 유행하면서 신랑예복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웨딩 드레스는 점차 화려해지고 스커트 폭도 극대화 되었으나 최근 들어 다시 슬림하고 심플한 웨딩드레스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3) 웨딩드레스의 네크라인, 노출 정도, 소매, 장갑, 드레스 길이, 장식 정도

웨딩드레스의 네크라인, 소매, 장갑, 드레스 길이, 장식 정도를 각각 5년 단위로 하여 교차 분석 및 질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웨딩 드레스의 네크라인은 1970년대 초반까지는 라운드 네크라인이 주를 이루었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하이 네크라인과 라운드 네크라인이 공존하며 노출이 거의 없는 형태이었다. 1980년대부터 점차 비치는 소재를 사용하여 가슴 선까지 비치거나 노출이 많은 형태가 유행하였는데 이는 웨딩드레스가 폭이 넓어지고 화려해지는 것과 그 시기를 같이 하였다. 1990년대 이후에는 웨딩드레스에 패션경향이 두드러지고 네크라인은 V 네크라인, 스퀘어 네크라인, 보우트 네크라인 등 다양한 형태가 공존하였으며 모든 형태에서 목에서 가슴 어깨까지로 노출 부위는 점차 많아졌다.

신부의 소매형태는 웨딩드레스가 처음 입혀지던 1960년대에는 긴 보통소매를 주로 착용하였으나 1970년대에는 손목이나 팔꿈치에서 퍼지는 소매가, 1980년대 이후에 캡 소매나 반 소매가 선호되어 전 반적으로 부풀린 소매가 유행하였고, 1990년대에 웨딩드레스 폭이 확대되면서 소매 부풀림은 사라지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후반에는 아주 심플한 소매나 민 소매가 유행하였다. 이는 장갑의 형태에서도 변화를 가져와 신부의 소매가 길 때에는 짧은 장갑을, 소매가 짧을 때에는 긴 장갑을 착용하게 되었다.

드레스 길이에 있어서는 1960년대에 여성복에서 미니 스커트가 유행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웨딩드레스에서도 미니 웨딩드레스가 있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본 자료에서는 1960년대에 바닥길이의 드레스가 많이 착용되었으며, 점차 드레스 길이가 길어져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는 전체의 60% 이상이 바닥보다 긴 드레스를 착용하였는데



<그림 2> 신부의 드레스 형태의 변화.

10) 한상숙, op. cit.  
11) 김자은, op. cit.

이는 여성복이 1960년대 미니 스커트가 유행하다 점차 치마 길이가 길어진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다시 바닥길이의 드레스가 증가 추세를 보여 바닥보다 긴 드레스와 공존하고 있다.

신부장식은 전통혼례가 주를 이루던 1960년까지는 적었으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복에서의 화려함이 반영되어 점차 많아졌다가 다시 1990년대 이후엔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드레스의 노출이 많아지고 폭이 넓어지면서 장식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여진다.

#### 4) 웨딩 드레스의 형태적 특징간의 상관관계

〈표 1〉에서와 같이 웨딩드레스의 형태적 특징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드레스 형태는 네크라인, 소매, 장갑, 장식, 직물의 투명도 등 각 변인간에 관계가 있었으며 드레스 형태와 네크라인은 매우 높은 관계를 보였다. 드레스 형태의 폭이 좁을수록 라운드 네크라인이나 하이 네크라인이었으며 드레스 형태의 폭이 넓어질수록 네크라인은 노출정도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레스의 네크라인은 소매, 장갑, 장식, 직물의 투명도의 변인간에 관계가 있었고 소매는 장갑, 장식, 직물의 투명도와 관계가 있었다. 장식은 직물의 투명도와 높은 관계를 보여 직물이 투명할수록 직물의 특성을 살려 러플의 형태로 장식이 많았다. 즉, 드레스 형태의 폭이 좁을 경우 라운드 네크라인이나 하

〈표 1〉 웨딩 드레스의 형태적 특징간의 상관관계 (n = 390)

	드레스 형태	네크라인	신부 소매	신부 장갑	신부 장식	직물 투명도
드레스 형태	1.000					
네크라인	.705**	1.000				
신부소매	.210**	.224**	1.000			
신부장갑	.583**	.492**	.173**	1.000		
신부장식	.486**	.475**	.452**	.459**	1.000	
직물투명도	.490**	.442**	.456**	.509**	.707**	1.000

\*\*p<.01.

이 네크라인에 소매통이 좁고 긴소매에 짧은 장갑을 착용하였으며 투명한 레이스 직물이 많이 사용되면서 러플이나 주름으로 장식이 많아졌다. 드레스 형태의 폭이 넓어질수록 네크라인의 노출정도는 많아졌으며 짧고 심플한 소매나 민 소매에 긴 장갑을 착용하였으며 직물도 불투명한 것을 사용하여 스커트 자체의 외형을 돋보이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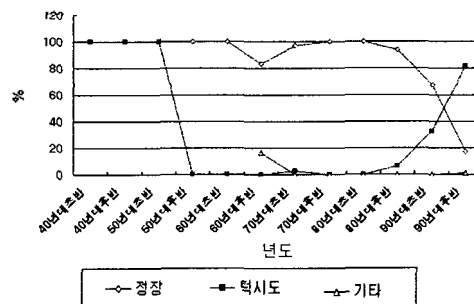
### 3. 신랑 결혼예복의 변화

신랑 결혼예복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결혼 연도를 5년 단위로 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각 항목들을 교차분석 및 질적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신랑 예복의 유형

신부가 결혼예복으로 한복을 입었던 1940~1960년대에도 신랑은 대부분 턱시도나 양복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성이 먼저 서양복을 수용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일반 서민들에게 사진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1960대 후반에서 1970년대의 자료에는 오히려 한복 착용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세계 제 2차 대전과 6.25동란과 같은 전쟁을 겪는 중에도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일부 인텔리 계층에 한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1990년대 이후에 전통혼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복 착용자가 다시 나타나게 된다.

〈그림 3〉에서와 같이 1950년대 초까지는 턱시도가 신랑의 결혼예복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 시기에는 일부 인텔리 계층만 신식 결혼식을 하였고 일반 서민에게 있어서 결혼은 여전히 전통혼례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신식 결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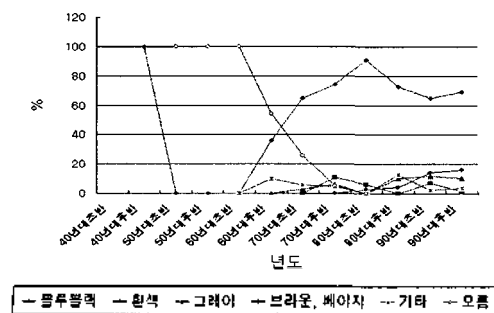
〈그림 3〉 신랑 양복 유형의 변화.

이 일반화된 시기인 1960년대부터는 일반 양복이 대부분이었으며, 약간 짧은 소매와 좁고 긴 라펠이 달렸다. 1970년대에는 큰 라펠에 소매 길이가 보통으로 되었다. 그러나 신부의 웨딩 드레스가 화려해진 1980년대 이후에는 신랑예복도 신부예복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일반 양복보다 화려하게 보일 수 있는 턱시도의 사용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일반 양복의 경우에 라펠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었다. 1990년대 초반부터 턱시도 착용이 점차 늘어나게 되어 1996년 이후에는 턱시도가 일반화 되었는데 이는 가계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하여 한층 화려해진 웨딩드레스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부의 예복이 스커트 폭, 소매 형태, 니크라인 등에서 큰 변화를 거치는 동안 신랑예복은 그 형태 면에서 1980년대까지 일반 양복에서 라펠의 크기, 소매 길이, 앞단선 등에서 소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일반 양복에서 턱시도 착용으로 일대 변환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2) 예복색상

〈그림 4〉와 같이 예복색상은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혼재 하였으며, 칼라 사진이 대중화되기 이전인 1960년대까지는 분색이 불가능하였고 칼라 사진이 일반화된 1970년대에는 베이지나 브라운이, 1980년대에는 감색이나 검정색이 선호되었고 1990년대 이후 턱시도의 착용이 많아지면서 중전의 어두운 색상보다는 베이지나 브라운 혹은 흰색이 선호된 것으로 나타나 신부 예복의 화려함과 조화를 이루려는 것으로 보이며 패션에 대한 남성들의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림 4〉 신랑 예복 색상의 변화.

3) 셔츠, 조끼

일반 양복을 주로 착용하던 1980년대까지는 셔츠 형태도 일반적인 것이었으나 턱시도 착용이 늘어난 1990년대에 와서는 장식 없는 턱시도용 셔츠가 일반화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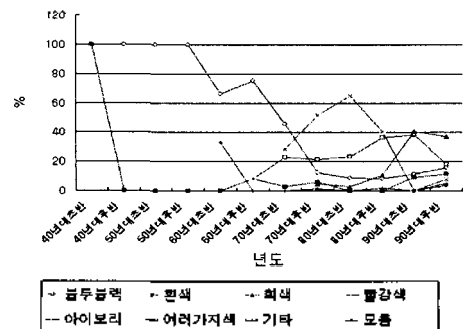
셔츠 색상은 일반 양복일 경우와 턱시도가 유행했던 최근까지도 흰색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는 결혼식이 최고의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만큼 다른 색이나 무늬가 있어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은 좋지 못할 뿐더러 흰색이 얼굴을 가장 돋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랑의 조끼 착용은 1970년대에는 일반적인 것이었으나 그 이후에는 점차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1980년대 이후 캐주얼 의류가 확산됨에 따라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1996년대 이후 다시 착용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턱시도가 유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넥타이 색상, 형태

〈그림 5〉와 같이 넥타이 색상은 여러 가지가 함께 사용되었으나 눈에 띄는 것은 감색이나 검정 양복이 많았던 1976~1985년까지는 붉은 계열의 넥타이 사용 빈도가 많았는데 이는 이 시기가 경제 발전의 영향으로 선진국형 소비 패턴이 나타나고 올림픽 유치로 계기로 스포츠 캐주얼 의류가 확산됨에 따라 신랑의 결혼예복에서도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턱시도가 주로 입혀진 1996년 이후에는 흰색 턱시도와 어울리는 회색 타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넥타이의 형태는 양복과 셔츠의 형태와 관련이 있어서 일반 양복이 많이 입혀졌던 1980년대 말까지



〈그림 5〉 신랑 넥타이 색상의 변화.

〈표 2〉 신랑 결혼 예복의 형태적 특징간의 상관관계

(n = 390)

	예복유형	예복색상	넥타이형태	넥타이색상	넥타이패턴	셔츠형태	셔츠색상	조끼
예복유형	1.000							
예복색상	.163**	1.000						
넥타이형태	.831**	.120*	1.000					
넥타이색상	.038	.441**	.000	1.000				
넥타이패턴	.355**	.115*	.287**	.138**	1.000			
셔츠형태	.910**	.160**	.833**	.057	.434**	1.000		
셔츠색상	.802**	.233**	.625**	.105*	.547**	.794**	1.000	
조끼	.440**	.168**	.329**	.076	.337**	.453**	.556**	1.000

\*\*p&lt;.01, \*p&lt;.05.

는 일반적인 넥타이가 많았고 1990년대 이후 턱시도가 유행하면서부터 턱시도에 맞는 자보우 타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6) 신랑 결혼예복의 형태적 특징간의 상관관계

〈표 2〉와 같이 신랑예복 변인간의 상관관계는 예복유형과 넥타이 형태, 셔츠 형태, 셔츠 색상과 매우 높은 관계를 보였고 넥타이 형태와 셔츠 형태와도 높은 관계를 보였다. 예복 유형이 정장(비즈니스 슈트)일 경우 넥타이 형태와 셔츠형태는 일반적인 형으로 착용하였고 턱시도일 경우 장식없는 턱시도형 셔츠, 자보우 타이가 착용되었다.

예복 색상과 넥타이 색상은 높은 관계를 보여 감색이나 검정양복이 많았던 1976~1985년까지 붉은 색 넥타이 사용빈도가 많았던 점은 특기할 만 하다.

#### 4. 결혼 예복의 범주화

결혼 예복을 시대에 따라 범주화함에 있어 변화가 좀 더 컸던 웨딩드레스를 주축으로 5가지로 범주화하고 그 특징에 따라 〈표 3〉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 V. 결 론

본 연구는 문화의 한 요소인 복식 중에서 서양의 결혼예복인 웨딩드레스와 양복이 우리 나라에 도입, 수용되고 변화해 가는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실제 결혼 사진을 시대별로 분석하여 결혼예복의 특징을

알아보고 신랑·신부의 의복형태, 디테일, 장식, 색 등의 디자인 요소간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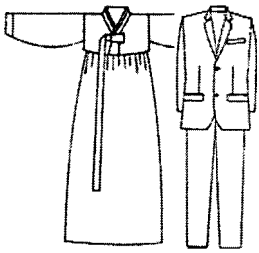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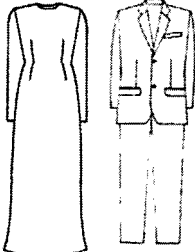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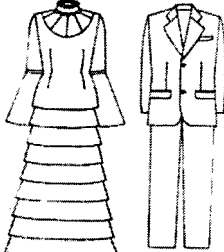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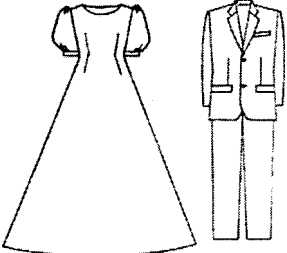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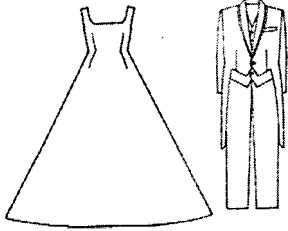
우리 나라는 갑오경장을 전후해 사회 문화적으로 큰 변환기를 갖게 되고 외국과의 문화 접촉을 통해 웨딩드레스도 양장과 함께 도입, 수용되었다. 웨딩드레스가 처음 도입된 것은 1890년대이나 처음부터 완전히 수용되지는 못했으며 우선 신식 결혼 형식만을 따르게 되고 그 다음엔 흰 치마 저고리에 베일을 소개 되다가 차차 요즘의 웨딩드레스를 입게 되었다. 이는 다른 문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서서히 수용 범위를 넓힘으로써 불안감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시대에 따른 결혼예복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의복 특성에 따라 다섯 시기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1. 1940년대~1950년대까지는 한국의 결혼 문화에 전통 결혼 예복과 서양식의 결혼 예복이 공존하였다. 신부가 원삼과 족두리를 입었을 경우 신랑은 사모관대를 착용하였으며, 신부가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베일을 썼을 경우 신랑은 턱시도를 착용하거나 그 당시에 유행하던 짧고 긴 라펠이 달린 양복을 착용하였다.
2. 1960~1970년대 초반까지는 서양식의 결혼 예복이 우세하였다. 신부의 웨딩드레스는 슬림하고 라운드 넥라인과 긴 소매가 달려있었다. 신랑은 감색 혹은 검정 계열의 진한 색 양복과 조끼 착용이 일반적이었으며 양복과 같은 진한 색 넥타이가 많았다.



<표 3> 결혼 예복의 시계열 분석에 따른 도식화

시 기	도 식 화	특 징	
1940년대 ~ 1950년대		신부	저고리, 치마, 베일, 원삼, 족두리
		신랑	턱시도 양복은 소매가 짧고 좁고 긴 라펠
1960년대 ~ 1970년대 초반		신부	바닥 길이의 슬림형드레스, 라운드 넥라인, 긴 보통 소매, 짧은 장갑
		신랑	감색 혹은 검정 양복, 보통 길이의 소매, 둥글린 앞단선, 좁고 긴 라펠, 조끼 착용, 감색 혹은 검정 타이
1970년대 후반		신부	A라인의 타어드 스커트, 하이 넥라인, 손목 혹은 팔꿈치에서 벌어지는 긴 소매, 바닥 길이
		신랑	큰 라펠, 베이지나 브라운 색상의 일반 셔츠, 붉은 넥타이
1980년대		신부	가슴이 비치고 스커트 폭이 확대된 A라인의 스커트, 하이 넥라인, 캡 소매 혹은 반 소매
		신랑	라펠이 작아짐, 감색이나 검정색 양복이 주류, 붉은 넥타이, 턱시도 등장
1990년대		신부	바닥보다 길고 스커트 폭이 옆으로 극대화, 가슴, 어깨, 팔 노출, 장식 최소화, 긴 장갑
		신랑	베이지 혹은 브라운 색상의 턱시도의 일반화, 회색의 자보우 타이

3. 1970년대 후반에는 결혼 예복이 더욱 격식화·장식화되었다. 신부의 웨딩드레스는 하이 네크 라인에 A라인의 티어드 스커트로 바닥 길이였으며, 손목 혹은 팔꿈치에서 벌어지는 긴 소매가 달려 있었다. 신랑의 양복은 전에 비해 큰 라펠이 달리고, 베이지나 브라운 계열의 드레스 셔츠에 붉은 넥타이를 착용한 경우가 눈에 띄게 많았다.
  4. 1980년대에는 비치는 소재와 턱시도 수트가 계 등장되었다. 신부의 웨딩드레스는 가슴이 비치고 스커트 폭이 전에 비해 확대된 A라인 스커트였으며 하이 네크라인에 캡 소매 혹은 반 소매가 달려 있었다. 신랑의 양복은 다시 라펠이 작아지고 감색이나 검정색이 많았으며 여전히 붉은 넥타이 착용이 많았고, 신랑의 예복으로 턱시도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5. 1990년대에는 예복의 형태와 노출이 과장되었다. 신부의 웨딩드레스가 바닥보다 길고 스커트 폭은 극대화되었으며 가슴, 어깨, 팔 노출이 많아짐에 따라 긴 장갑을 착용하게 되었다. 신랑은 베이지나 브라운 색상의 턱시도와 회색의 자보우 타이 착용이 일반적이었다.
- 둘째, 신부의 의복형태, 네크라인, 장갑, 장식정도, 직물의 투명도간에는 의미있는 관계가 있었으며 신랑의 의복형태, 넥타이 형태, 셔츠의 형태와 색, 조끼

간에는 의미있는 관계가 있었다.

셋째, 결혼예복에서도 웨딩드레스의 폭이 좁은 것으로부터 점차 넓어지다가 최고점에 다다른 최근에는 다시 슬림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남성 예복으로 사용된 양복에서도 라펠의 넓이나 바지의 폭이 일반 양복의 유행현상과 같은 흐름을 보임으로써 신랑·신부의 예복 외형에 대한 분석은 패션 트렌드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다.

## 참고문헌

- 강혜영 (1993). 전통혼례복을 활용한 웨딩드레스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자, 임원자, 이은영, 구미지, 김윤희 (1993). 한국 복식 변천과 사회변천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17권 제2호.
- 김자은 (1993). 웨딩드레스(Wedding Dress)의 역사적 변천에 관한 고찰,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수경 (1991). *한국 여성 양장 변천사*, 일지사.
- 전양진 (1999). 경제발전과 복식의 서구화와의 관계 연구: 한국 여성복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제23권 제8호.
- 한상숙 (1985). 근대이후 한국의 혼례복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